

주간기도정보

2026. 2. 1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세속주의 확산 속 “기도가 딥”… 한다연,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개최
‘교회는 영적 싸움 한복판’, ‘무신론 사상을 무너뜨려라’



세속주의와 무신론 사상 확산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다연(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 사상을 무너뜨려라’를 주제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는 환영사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보이는 세계의 문제는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에 다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설교를 맡은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는 ‘한 사람’의 순종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했다”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강의자로 나선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인간 정신을 뇌의 물리·화학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두뇌주의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인간을 고성능 생체 컴퓨터로 보는 시각은 결국 인간 존엄을 악화시키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며 “두뇌주의는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임을 다음세대에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그안에진리교회 목사는 ‘문명의 뿌리를 둘러싼 세계관 전쟁’을 주제로 세속주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며 절대 진리가 해체되고, 이제는 문화와 제도를 통해 세계관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침묵하면 가치의 공백을 세상이 채운다”며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위에 분명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소영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는 인본주의가 낳는 영적 위기를 짚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 AI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 드러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자체보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세대에 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모든 순서를 마친 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영적 간구와 다음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한마음으로 통성기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디모데전서 6:3-4)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편 14:1)

하나님, 세속의 물결이 한국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합기도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를 높이는 세상의 어리석은 외침이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세속주의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세대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세상을 이기는 예수교회로 회복케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소년단 입단도 ‘줄 세우기’… 북한 소학교서 갈등 확산

몇 차례 입단했는지가 ‘서열’로 인식되는 분위기…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북한 함경북도 일부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조선소년단 입단생 선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담임교사가 1월 중순 개별 학생들에게 입단 추천 여부를 미리 알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언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진시 청암구역의 한 소학교에서 올해 첫 입단생 추천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결석도 없는데 왜 명단에 없느냐”고 항의하자, 담임교사는 “학교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고, 이후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가 학급 변경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조선소년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조직으로,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체제에 충성하는 ‘혁명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소학교 2학년(만 7세)이 되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해야 한다. 소년단 입단식은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총 세 차례,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조선소년단 창립일(6월 6일)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분산 개최된다.

통상 각 기념일에 열리는 연합단체대회에서 입단식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입단 선서를 한 뒤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착용하고 정식 단원이 된다. 문제는 입단 시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순위’로 인식된다는 점으로, 공식적으로는 성적과 생활 태도가 기준이지만 실제 추천 과정에서는 학부모의 청탁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1차(2월 16일) 입단생은 가장 먼저 붉은 넥타이를 매기 때문에 스스로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다”며 “반면 마지막 차수에 입단한 학생들은 창피함을 느끼고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넥타이를 먼저 맨 학생은 모범생으로, 아직 매지 못한 학생은 뒤처진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같은 교실 안에서도 소년단 입단 시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서열이 형성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1차 입단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교 행정 관계자를 찾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 뇌물이 오가는 것도 다반사라고 한다.

한편 입단을 앞둔 학생들은 소년단 입단 선서문과 소년단원의 의무·권리, 최고지도자들이 지은 시와 노래 등을 암기해야 하며, 학급 추천을 받더라도 학교 소년단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식통은 “부모들이 틸락을 우려해 아이들에게 암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달 1-3일 담임 추천이 이뤄졌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6-7일째 입단 대상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품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명기 4:9)

하나님, 총성이 생존을 결정하는 북한에서 막강한 권력 속에 통제당하며 어릴 때부터 서열 경쟁에 내몰리는 다음세대와 그것에 목숨을 거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공산주의 정권 아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섬김이라는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혓된 야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북한의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거듭난 부모세대가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사 북한의 어린 영혼들이 작은 예수 되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과 열방을 섬기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청소년 흡연·음주, 고학년이 될수록 증가

초6부터 고2까지 추적해보니 음주·흡연 급증…중학교 진학 시 가장 취약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 행태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고교 졸업 후 3년까지 10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로, 이번 보고서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0.35%에서 중학교 3학년 3.93%로, 고등학교 1학년 6.83%, 고등학교 2학년 9.59%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1.54%)이 일반 담배(1.33%)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전자담배가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반 담배보다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음주 경험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60.8%가 한두 모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며, 한 잔 이상 음주 경험률은 33.7%에 달했다. 특히 음주를 시작하는 시점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가 15.6%로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 시기가 유해 약물에 가장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 건강과 생활습관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33%로 높아지며, 과일, 채소 섭취율은 감소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3.5%에 불과하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5.1%, 중간단계 이상의 불안 장애 경험률은 8%로 나타나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드러났다.

이런 건강 행태 변화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친구가 흡연·음주에 관대하거나 주변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청소년이 유해 행태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정 내 흡연자나 음주자가 있고 부모가 자녀의 음주에 허용적일수록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더 이른 시기에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학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음세대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부모와 교사, 교회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하나님,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진다는 소식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흡연과 음주라는 잠깐의 쾌락에 자신을 방종하며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호기심으로 악한 일을 부추기는 사단을 꾸짖어 주시고 이 세대가 자신을 죄의 유혹에 내주지 않고 우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도록 은혜를 주소서. 또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음세대에게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며, 주의 진리를 가르쳐 자녀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